



# 4

**진로편** 진로 여정을 쓰다

요즘, 인천 학생 **길**

‘요즘, 인천 학생’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 실태조사(2018~2025)」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진로는  
생각보다 더 다층적입니다.  
“꿈이 뭐야?”라는 질문 앞에서  
학생들은 쉽게 답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흔들리기도 합니다.

수업과 상담, 한 번의 진로체험과 한 사람의 멘토,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며  
학생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진로는 정답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탐색하고 경험하며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이 책은 인천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해 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학교 안팎의 작은 경험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는 순간을, 이 책과 함께  
차분이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 Contents

## Chapter.1

### 진로가 뭐예요?

진로이야기	08
인천 학생들의 진로 여정	10
숫자로 보는 인천 학생 진로 변화	13
진로, 동상이몽	21

## Chapter.2

### 진로는 찾는 걸까? 배우는 걸까?

나의 길을 읽다	26
흔들림을 건너는 힘	28
미래를 준비하는 힘	35
각양각색의 꿈, 나만의 길을 지키다	39

Chapter.3

그 길, 꼭 가야 하나요?

속도는 모두 다르다 .....	48
경험에서 자라는 배움 .....	51
세상 속에서 배우는 진로 .....	55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 .....	61
새로운 길을 앞둔 선택 .....	66
고3의 빛나는 출발을 응원하며 .....	69

## Chapter.1

# 진로가 뭐예요?

진로이야기

인천 학생들의 진로 여정

숫자로 보는 인천 학생 진로 변화

진로, 동상이몽

#### 4 진로편

# 요즘, 인천 학생 길

○ “이 세상에

흥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람의 운명은 별의 역사와도 같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독특하고 비범하여

서로 닮은 별은 하나도 없다.”

- 에브게니 엡투센코, '별의 역사' 중에서

## 진로 이야기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닿지 않더라도,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는 존재이지요. 밤하늘의 별이 저마다의 궤대로 빛을 내듯, 학생들 역시 각자의 속도로 자신만의 ‘별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과 마주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여러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넌 꿈이 뭐야?”

“왜 그런 꿈을 꾸니?”

“그 꿈을 이루려면 뭘 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때로 이 질문이 막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꿈’을 말하더라도, 그게 직업을 뜻하는 것인지, 진학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인지조차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는 시기에, ‘꿈’과 ‘진로’라는 단어는 다소 무겁고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학교의 역할로 옮겨갑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천천히 탐색하고, 스스로의 방향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학교는 어떤 공간이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의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가능성을 탐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진로교육은 바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진로’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자아실현’이라는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탐색하며, 나만의 미래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진로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진로를 ‘직업’이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의를 택하더라도, 진로의 본질은 결국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루어진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탐색,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선택의 순간들이 학생들의 목소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목소리 가운데 학생들의 진로 인식과 진로교육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문 결과와 더불어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품고, 어떻게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해 나가는지를

들여다보며, 교사와 학부모가 그 여정을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를 찾아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 교사와 결대로진로센터 업무 담당자의 시선을 통해 인천의 다양한 진로교육 정책과 실천 사례를 다시 살펴보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학생의 성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도 짚어 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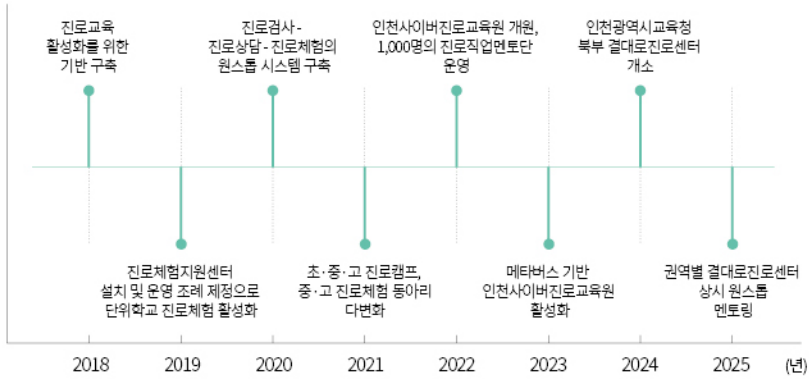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학생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꿈꾸는가?’, ‘그 삶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해 나가도록 이끄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교실에서, 상담실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살아가는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그 여정의 첫 장을 이 책과 함께 출발해 봅니다.

## 인천 학생들의 진로 여정

우리 인천 학생들이 꿈꾸는 진로는 하루 아침에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지식, 동아리와 방과 후 활동, 다양한 체험학습, 멘토의 한마디, 그리고 스스로 적어 보는 기록과 생각들이 하나하나 쌓이며 서서히 학생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인천의 진로교육은 바로 이러한 여정을 학생 곁에서 더 풍부하게, 더 안전하게,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조금씩 진화해 왔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해 온 현장 전문가는 지난 8년간의 인천 진로교육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 인천 진로교육 타임라인<sup>1</sup>

2018년은 “진로교육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경험 기반 체험 인프라를 촘촘히 깔아 놓은 출발점”입니다. 진로교육의 기본틀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 기반 인프라를 세밀하게 마련했던 준비기이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에 답을 찾아가는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은 진로검사와 진로상담, 진로체험이 ‘단절된 이벤트’가 아닌 원스톱 흐름(검사→상담→체험→피드백)으로 연결되어 활성화된 시기로, 지역사회 진로체험 네트워크 초석을 정비한 단계였습니다.

2021년에는 이전부터 쪽 진행되어 온 진로캠프와 진로체험 동아리 등이 학교마다 주제를 정하고 진행하는 테마형 프로그램과 캠프 등으로 다변화되어 운영되었으며 “내가 뭘 더 좋아하지?”를 교실 밖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기회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학교 수업과 연결되는 4대 과제를 마련해 수업 속으로 스며드는 진로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이 개원하면서 1,000명의 진로직업멘토단이 운영되어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1 2018~2025년도 인천 진로교육 추진계획을 근거로 작성함.

배움의 연장선에서 진로교육이 수업 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구조로 변화한 것입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후 학습 경험의 장이 다시 확장된 시기로, 메타버스 기반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온·오프 연계 인천 청소년 진로 박람회를 개최하여 전공학과 설명회, 진로진학 특강, 진로진학 상담 등을 운영하여 몸으로 전공을 느끼고 체험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북부 결대로진로센터가 개소하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는 길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인천의 진로교육은 온오프라인의 든든한 두 개의 엔진, 즉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과 권역별 결대로진로센터가 상호보완하며, 작동하는 상시체제로 자리 잡아, 현재 5개의 권역별 결대로진로센터에서 상시 원스톱 멘토링이 가능한 미래형 진로·진학·직업 탐색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진로는 정답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탐색 → 경험 → 성찰 → 조정’의 과정을 반복하며 ‘나’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인천의 진로교육은 바로 이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마다 한 걸음씩 방향을 다듬고 지원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학생이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 하나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학생의 내일과 미래의 방향을 조금씩 밝혀줍니다. 인천의 진로교육은 이 과정을 대신 결정하기보다, 곁에서 지켜보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학생이 혼자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비추어 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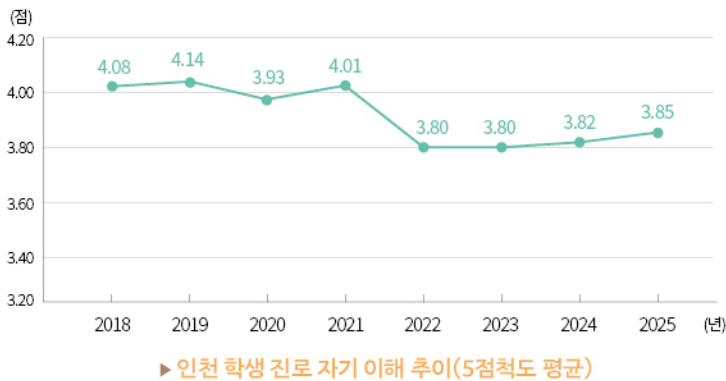
이제부터는 인천 학생들이 진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학교의 진로교육이 어떤 도움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리는 이후의 학습과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 조사」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방향이 되는 것—그 길을 함께 밝히는 일이 바로 진로교육입니다.

## 숫자로 보는 인천 학생 진로 변화

앞서 인천의 진로교육이 지난 8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런 흐름이 실제 학생들의 인식 속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연도별 데이터를 통해 차분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 인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프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 평균 점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점수의 등락 폭은 크지 않

지만, 시기별로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소폭의 하락과 회복이 반복되는 조정 국면을 보였으며, 2022년 이후에는 큰 변동 없이 정체를 거친 뒤 최근 들어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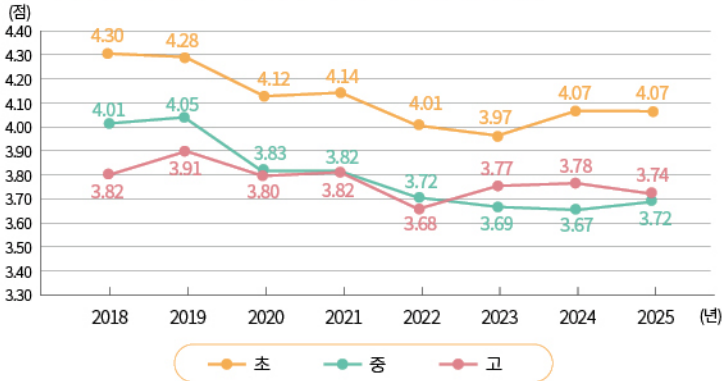
2018년에는 4.08에서 2019년 4.14로 소폭 상승한 뒤, 2020년에는 3.93으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4.01로 회복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3.80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며 잠시 정체가 이어졌고, 2024년 3.82, 2025년 3.85로 최근에는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가 단순히 오르거나 내리는 직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당시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1~2022년의 하락과 정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과 체험 중심의 진로 경험이 줄어들었던 시기와 맞물려, 이 시기의 특별한 상황이 학생들의 자기 이해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최근의 점진적 상승은 학교생활과 진로 관련 활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학생들이 다시 자신의 진로를 차분히 돌아보고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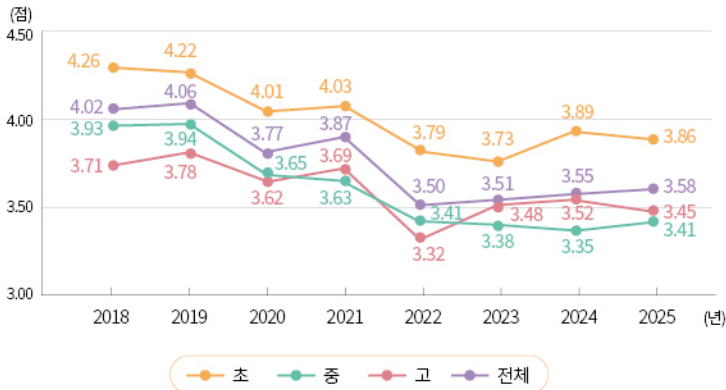
## 몸이 자라는 만큼 진로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자랄까?



▶ 인천 학생 진로 자기 이해 변화 추이(5점척도 평균)

학교급별 진로 자기 이해 평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평균 4.0점대 초반을 유지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30, 2019년 4.28, 2022년 4.01, 2024년 4.07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반면 중학교는 2018년 4.01에서 2020년 3.83, 2023년 3.69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시 2018년 3.82에서 2022년 3.68로 낮아졌다가 2025년 3.74로 완만하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학교 시기가 진로 탐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학생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기준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보다는 비교와 고민이 먼저 앞서는 모습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런 경향은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이해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 인식 문항에서도 함께 드러납니다. 실제로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문항에서도 중학생은 세 학교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천 학생 자기 강점 인식 비교(5점척도 평균)

중학교는 2018년 3.93에서 2020년 3.65, 2022년에는 3.41까지 감소하여, 자신의 강점을 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등학교가 2018년 4.26, 2024년 3.89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며, 고등학교 역시 2018년 3.71에서 2021년 3.69, 2025년 3.45로 중학생과 비슷하게 완만한 감소 흐름을 보입니다.

이 두가지 데이터를 함께 보면, 중학교의 진로 자기 이해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시기는 학업 부담, 또래 관계, 비교와 평가 경험 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스스로의 강점을 탐색하고 재정의하는 과정이 겹쳐지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자기 이해 수준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진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학교급별 진로교육 역시 각 발달 단계의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고, 중학교에서

는 자신의 강점과 관심을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 경험과 성찰 활동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목표와 방향성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학생들의 실제 경험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다음은 한 학생이 지난 몇 년간 진로를 탐색해 온 과정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2020년, 제가 중1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진로체험학습이 전부 취소됐다는 말을 듣고 정말 실망했지만, 그때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었죠. 그 뒤로 진로활동은 거의 온라인 영상으로만 진행돼서 저도 친구들도 진로교육을 좀 따분하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 2022년에 대면 직업계고 설명회에 가면서 제 진로 방향을 정했고, 2024년 진로박람회에 참가하면서 로봇 개발에 대한 꿈을 확실히 굳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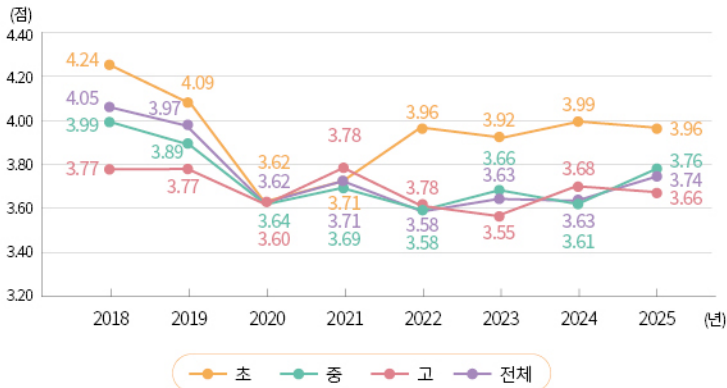
-부평O고 3학년 학생 박OO

이 학생의 경험은 진로교육 환경의 변화가 학생의 자기 이해와 선택 과정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던 시기에는 진로 경험의 폭이 좁아지고 흥미 역시 낮아졌지만, 대면 활동이 다시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관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았습니다. 학교급별 진로 인식에서 나타나는 차이 역시, 학생들이 경험하는 활동의 양과 질, 그리고 각 성장 단계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선택의 장면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놓인 시기와 상황을 함께 살피며 이어질 때 의미를 더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넓게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중학교에서는 스스로의 강점과 방향을 탐색하며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구체화하고 현실과 연결할 수도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선택의 기회가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며 지원할 때, 학생들은 각자의 속도에 맞춰 진로 여정을 한 걸음씩 넓혀갈 수 있습니다.

### 인천 학생들이 느끼는 진로교육의 효과는 어떨까?

앞선 진로 인식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인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학교급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인천 학생 진로교육 효과성 비교 (5점척도 평균)

인천 학생들의 8년간 진로교육 효과성 평균 점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2018년 4.24에서 2019년 4.09로 다소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4점대 초반에서 3점대 후반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중학교는 2018년 3.99에서 2020년 3.64로 하락했다가 2022년 3.58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초

등학교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역시 2018년 3.77에서 2020년 3.60으로 하락한 뒤 최근 2024년에는 3.68로 회복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0~2021년은 모든 학교급에서 점수가 3점대 중반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진로 체험, 프로젝트형 수업 등 실제 경험 중심의 활동이 제한되었던 시기와의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에 따라 진로교육 효과성이 달라지는 것은 발달 단계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교육에 기대하는 정보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3년 3.55, 2024년 3.68로 다소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지만, 입시 준비와 진로 선택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에 놓여 있어 진로교육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한층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공되는 활동이 학생 개인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할 경우, 체감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학생들의 실제 목소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공통과학 시간에 과학실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할 줄 알았는데, 수업이 진도 위주로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실험은 언제 해요?’라고 여쭙더니, 진도가 밀리면 모의고사에 타격이 커서 프로젝트는 시간이 되면 한다고 하셨어요. 대답이 내신과 모의고사 중심으로 평가되니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해요. 그래도... 직접 해보는 실험 수업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 ○○고 1학년 학생 김○○

발달 단계를 고려해 보면, 초등 고학년에서 비교적 진로교육 효과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이다가 중학교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흐름은, 사춘기를 거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방향을 찾고자 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의 진로교육 효과성 점수는 2020년 3.64에서 2022년 3.58로 하락하며,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의 복잡성과 부담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은, 직업계고·일반고 등으로 진로 방향을 점차 구체화해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시기라는 점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 3.60에서 2024년 3.68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이는 진로 목표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급별 진로교육 효과성의 차이는 단순한 점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학생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진로 탐색-혼란-재정립’의 흐름이 누적되어 드러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요구에 맞춘 진로 교육을 설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숫자로 드러난 변화의 흐름을 넘어, 학생들의 목소리 속에서 진로교육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어떤 감성과 고민을 안고 있었는지,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진로, 동상이몽

앞서 숫자로 확인한 변화의 흐름을 넘어, 학생들의 실제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진로에 관심이 높은 인천 학생 7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025년 11월 4일(화) 인천광역시교육청 북부 결대로진로센터<sup>2</sup> 내 ‘나눔꿈실’에서 각자의 진로 고민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초등학교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서로 다른 성장 단계에 놓인 학생들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언어로 꿈을 말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지점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 면담주제

- 기억에 남는 학교 안팎의 진로교육?
- ‘결대로 진로’ 의미가 무엇일까요?



▶ 초등학교생 면담



▶ 중학생 면담



▶ 고등학생 면담

사회자(교사 조성아), 김서현(당산초4), 고다운(부평여중1), 박소빈(부평여중2), 박상훈(부평공고3), 이세린(삼산고1), 김정주(삼산고1), 김정후(부광고3), 김태혁(부광고3)

2 인천광역시교육청 결대로진로센터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 2024년 5월 21일 북부 결대로진로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권역에서 맞춤형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기억에 남는 학교 안팎의 진로 경험

**사회자** 진로는 교실 안에서도, 집에서, 동네 곳곳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경험이지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진로나 진로교육 경험은 무엇인가요?

**김서현** 엄마 따라 다니던 책동아리 ‘동글이’가 제일 좋아요. 저도 엄마처럼 동아리에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나 요리를 마음껏 해보고 싶어요.

**김정후**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배우면서 저도 제 공부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채워가다 보니 목표하던 신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죠.

**박상훈** “중3 때 찾아가는 직업계고 설명회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성적을 고려해 직업계고를 선택하고,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그 덕분에 코레일에도 합격했고, 유럽 연수도 다녀왔어요. 인천 진로교육, 저는 대만족이에요.”

**이세린** “저는 늘 대입 프로그램만 챙겼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들은 직업계고 프로그램이나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대로 진로센터 프로그램도 자세히 알고 싶어요.”

**박상훈** 부모님은 대학을 원하셨지만, 학교 설명회를 듣고 부모님과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공기업을 준비하고 싶다는 제 생각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죠. 결국 부모님도 응원해 주셨어요. 함께 찾은 길이라 더 의미 있었어요.

### ‘결대로 진로’ 의미가 무엇일까요?

- 사회자** ‘결대로’ 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 김서현** 빵 가장자리를 떼면 쪽 찢어지잖아요? 그게 ‘결대로’ 같아요. 저도 제 결을 따라 차근차근 가보고 싶어요.
- 고다윤** 각자 자라는 속도도 방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대로’는 나답게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박소빈**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결대로’ 아닐까요?
- 김태혁** 처음엔 ‘정해진 길만 가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얘기를 듣고 보니, 서로의 결을 존중하자는 의미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역시 여러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 김정주** ‘결’은 나만의 고유한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입시뿐 아니라, 제 결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천의 ‘결대로 진로교육’은 이렇게 학생들 각자의 목소리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급마다 경험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결을 존중하며,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탐색하고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경험 하나, 스스로 얻은 깨달음 하나가 모여 내일의 방향을 열어 갑니다.

### **여러분의 결, 여러분의 속도로!**

인천의 진로교육은 그 여정을 곁에서 함께 합니다.

Chapter. 2

진로는 찾는 걸까?  
배우는 걸까?

나의 길을 읽다

흔들림을 건너는 힘

미래를 준비하는 힘

각양각색의 꿈,  
나만의 길을 지키다

#### 4 진로편

# 인천 요즘, 학생 길

○ 우리는 길을 찾기 전에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길을 읽지 못하면, 어떤 지도도 제대로 펼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로는 정답을 고르는 시험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방향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내 길은, 어떻게 발견하고  
지켜갈 수 있을까요?

나무는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미리 알지 못한 채, 그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천천히 자신의 형태를 찾아가듯, 학생들 또한 저마다의 속도로 자기 안의 빛을 발견해 갑니다. 물이 지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가듯, 학생들도 세상을 경험하며 자신의 방향을 그려갑니다. 이 여정에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로운 탐색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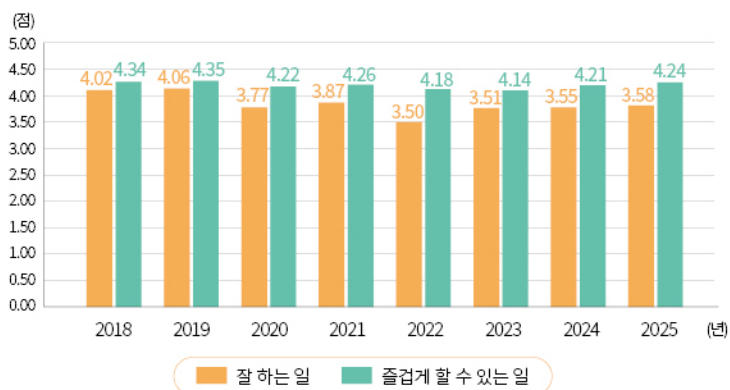
지금까지 인천의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스스로 써 내려갈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진로가 단순히 직업 선택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본질적인 과정이 되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길을 따라 성장해 가는 인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함께 펼쳐 보려 합니다.

## 나의 길을 읽다

학생들의 ‘결’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일상 속 작은 감정과 경험의 흔들림 속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씨앗이 햇빛과 물길을 따라 제 형태를 찾아가듯, 학생들 또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속도로, 어떤 길을 가고 자라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내면적 성장 과정은 데이터에서도 확인됩니다.



▶ 인천 학생 ‘잘 하는 일’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인식 변화 추이(5점척도 평균)

인천 학생들의 ‘내가 잘하는 일을 안다’는 응답은 2018년 4.02에서 2022년 3.50까지 낮아졌다가, 2025년 3.58로 다소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은 같은 기간 4점대 초반(2018년 4.34 → 2025년 4.24)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또렷하게 규정해야 하는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라는 문항은 성취와 평가를 떠올리게 하는 반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경험 속에서 느낀 감정과 흥미를 바탕으로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조용한 장면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칠판을 바라보지 않고 책상 모서리를 내려다보는 표정,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 관심은 있어 보이지만 쉽게 말로 옮기지 못하는 시선들입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라기보다, 아직 자기 안의 결을 충분히 읽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흔들림은 불안이라기보다는, 자기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잘하는 일’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즐거움과 흥미가 느껴지는 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말을 꺼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결을 성취의 크기보다는 경험 속에서 느낀 감정과 편안함을 통해 먼저 발견해 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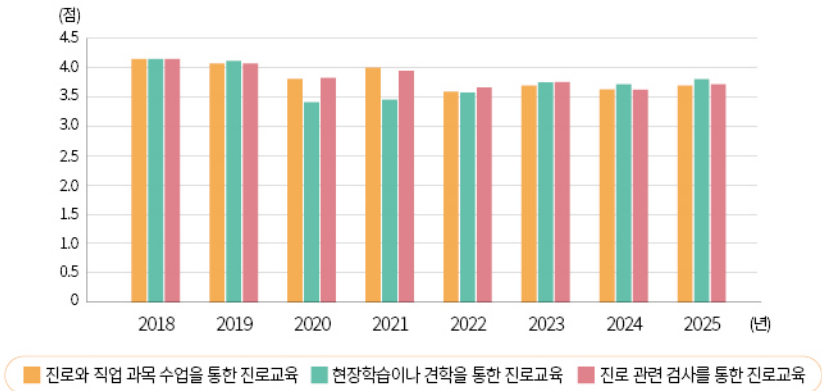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느끼는 작은 즐거움과 흥미의 방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결을 따라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흔들림을 건너는 힘

### 흔들리는 나를 세우는 과정

학생들의 진로 탐색 과정은 늘 한 방향으로 곧게 이어지기보다, 고민과 확신, 다시 흔들림을 오가는 반복적인 흐름 속에서 전개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막연함을 정리하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이 함께 작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응답한 진로교육 방법 10가지 항목 중 8년간 평균 도움도가 가장 높았던 세 가지 방법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진로관련 검사 활동 중심 진로교육,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이 세 가지 방법이 상위에 위치하며, 학생들에게 높은 도움도로 인식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천 학생 진로교육 방법 상위 3개 변화 추이(5점척도 평균)<sup>3</sup>

세 가지 방법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8~2019년에는 세 방법 모두 4점대 초반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0~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는 현장 활동과 대면 중심 수업이 제한되었던 코로나19 시기와 겹칩니다.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세 방법 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3 본 그래프는 진로교육 방법 10개 항목 가운데 8년 평균 기준 상위 3개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정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식 변화를 비교한 것임.

2022년 이후의 흐름에서는 세 방법 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은 2022년 이후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며,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합니다.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은 같은 시기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다른 두 방법과 유사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은 2024~2025년에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상승 흐름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방법이 일관되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도움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 수업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검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현장 경험을 통해 실제와 연결하는 방식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은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한 전 기간에 걸쳐 큰 폭의 하락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검사가 학생들에게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검사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 학생이 스스로 이해하고 다음 경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매개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주목해 보면, 최근 인천에서 활용되고 있는 ‘진로 AI 리포트’는 기존 ‘검사 중심 진로교육’을 한 단계 확장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종이 검사나 단일 결과 제시에 머물렀던 방식에서 나아가, 학생이 자신의 성향과 관심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진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변화가 실제 진로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진로 AI 리포트: 자기 이해를 정교하게 돕는 도구

최근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방식은 디지털 환경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천 사이버진로교육원은 AI 기반 진로검사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분석은 학생의 성향, 강점, 관심 분포를 여러 차원에서 해석해 주어, 학생이 막연하게만 느끼던 ‘나의 결’을 보다 선명한 언어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일 뿐, 그 방향이 실제 진학 전략이나 로드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해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인천은 권역별 결대로진로센터에서 현직 교사 중심으로 1:1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함께 현실적인 진로선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진로·진학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의 진로교육은 AI가 여는 자기 이해의 첫걸음과, 교사가 함께 설계하는 미래의 다음 걸음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체험 중심 진로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까?

앞선 그래프를 보면, ‘현장학습·견학을 통한 진로교육’은 8년 동안 평균적으로 상위 세 개에 해당하는 진로교육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세 가지 진로교육 방법 가운데 가장 높은 도움도를 기록하며,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코로나19 시기는 제외하고 점수의 급격한 변동은 크지 않지만, 오히려 이러한 꾸준함이 체험 중심 진로교육의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체험 중심 진로교육은 진로 검사를 통해 형성된 자기 이해를 현실 속에서 직접 시험해 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결’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관심과 방향을 실제 상황 속에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하거나 조정해 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진로 고민이 보다 구체화될수록 체험의 의미가 더욱 커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4.13	4.05	3.84	3.99	3.60	3.65	3.62	3.74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4.13	4.11	3.44	3.46	3.57	3.70	3.73	<b>3.86</b>
상담선생님의 상담 중심 진로교육	3.99	3.87	3.53	3.64	3.59	3.63	3.65	3.75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4.13	4.05	3.86	3.96	3.68	3.68	3.68	3.76
소집단 혹은 동아리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4.08	4.03	3.65	3.76	3.60	3.67	3.64	<b>3.74</b>
유명 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을 통한 진로교육	3.95	3.81	3.43	3.43	3.55	3.56	3.58	3.67
노동법 등 노동자 권리 교육	3.78	3.67	3.61	3.72	3.49	3.54	3.54	3.65

▶ 인천 학생 진로교육 방법별 도움 정도 인식(5점척도 평균)

위 표의 2025년 데이터를 보면,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은 3.86으로 전체 진로교육 방법 가운데 가장 높은 도움도를 보였습니다. 소집단·동아리 활동 역시 3.74로 교과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며, 경험 기반 진로교육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체험 중심 진로교육 방법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흐름은,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해보는 경험을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체험 중심 진로교육은 진로 검사처럼 학생의 결을 ‘만들어 주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로 검사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가늠해 보고, 진로 상담을 통해 그 의미를 정리한 뒤, 체험과 참여 속에서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로 검사가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라면, 진로 체험은 그 이해가 현실 속에서도 통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 체험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조심스러운 확신을 쌓아가는 단계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 검사-진로 상담-진로 체험’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구성될 때, 학생들은 진로를 단순한 정보나 판단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검증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게 됩니다. 최근 그래프에서 체험 중심 진로교육의 상대적 상승 역시, 이러한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 흔들릴 때 길을 비춰주는 작은 나침반

자기 이해를 언어로 정리하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시험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곧바로 분명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진로 탐색의 과정이 흔들림을 동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수업은 전 기간에 걸쳐 약 3.6에서 4.1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도움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는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이 단순히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의 기준을 세워 가는데 꾸준히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은 변화하는 직업 환경, 필요한 역량, 일의 방식과 가치 등을 다루며, 진로 검사와 진로 체험을 통해 형성된 학생의 ‘결’을 현실 세계의 조건과 연결하는 해석의 장이 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사람을 오래 만나야 하는 일은 힘들 것 같아요.”, “혼자 집중해서 하는 일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와 같은 말을 꺼냅니다.

이 말들은 특정 진로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자신이 느낀 감각과 경험을 현실의 언어로 옮겨 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의 경험’은 이후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의 가치는 학생을 특정 진로로 이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결, 체험을 통해 얻은 감각, 그리고 사회의 조건을 함께 놓고 조율해 보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기준을 마련하도록 돕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기준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변화와 불확실성 속

에서도 계속해서 판단하고 수정해갈 수 있는 작은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관련 수업은 학생들의 흔들림을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 흔들리는 순간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를 조용히 비춰 주는 역할을 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는 힘

미래 사회는 기술, 직업, 세계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 앞에서 기대와 함께 불안도 느낍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인천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이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각자의 걸을 바탕으로 탐색의 지평을 넓혀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직업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진로 탐색 방식을 시도하며, 교육과 경험을 통해 미래를 스스로 그려 나갈 수 있는 힘을 차분히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질을 현실의 기회로 확장하는 직업교육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 적성·흥미·소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습니다. 이는 ‘나의 걸’을 따르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더 넓은 세계로 펼쳐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천의 직업교육은 이러한 소질을 단순히 ‘선호’나 ‘관심’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가진 걸이 실제 진로와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진로 설계 교육을 연계해 자신의 역량을 구체인 선택과 경험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배워 보고, 만들어 보고, 시도해 보며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 속에서 시험해 보게 됩니다. 인천이 지향하는 ‘학생성공시대’는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이 누군가가 정해 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한 경로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생이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축적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직업교육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 도전의 결을 키우는 인천형 직업·창업 교육

인천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결을 실제 사회의 문제와 연결해 보는 도전 중심 직업·창업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적용하고, 관심을 실험하며, 실패와 수정의 과정을 경험하는 가운데 학생 스스로 일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스타트업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팀 프로젝트나 실험 활동으로 구현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이 어떤 방식으로 ‘일’이 되고, 나아가 ‘직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 취업·창업 지원센터, 글로벌 취업·창업 박람회 등 다양한 탐색의 장을 통해 학생들이 폭넓은 직업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 직업교육기관 탐방과 기업가정신 교류 프로그램 같은 국제적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해, 학생들이 세계의 변화와 일의

흐름을 직접 체감하며 글로벌 감각과 도전의 결을 함께 키워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창업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탐색과 실험의 과정을 거치며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협력의 경험을 쌓고, 자신에게 맞는 일의 방식과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의 가치를 천천히 발견해 갑니다.

결국 인천형 직업·창업 교육은 학생들이 가진 결을 현실의 기회로 확장하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그려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내적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불확실한 길이 확신이 되기까지

-부평○○고 3학년 박상훈

막연히 취업을 목표로 직업계고에 진학했을 때,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인천교육이 제공한 여러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였습니다. 특히 글로벌직업교육탐색대와 직업교육 박람회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글로벌직업교육탐색대였습니다.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실제 코레일 필기와 면접을 준비하는 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불확실했던 제 진로가 점점 뚜렷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진로교육은 저에게 단순히 취업을 위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학교를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경험이 없던 저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 때마다 진심으로 조언해 주신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업계고에 와서도 공기업에 갈 수 있고, 원하는 대학에도 갈 수 있어.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많아.”

중학교 시절 성적이 좋지 않았던 친구들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력한다면 원하는 길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증명했습니다. 제가 인천교육에 대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던 저에게 인천교육은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진로의 폭을 넓혀준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인천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이, 자신의 길을 찾고 싶은 또 다른 학생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교육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줄 것입니다.



▶ 인천시교육청 글로벌진로탐험대 연수  
(2025.1.21.(화))



▶ 한국철도공사 채용형 인턴 프로그램  
(2025.11.18.(화))

## 각양각색의 꿈, 나만의 길을 지키다

학생 한 명 한 명은 모두 다른 길을 가지고 있고, 그 길은 비교가 아니라 ‘존중’에서 비로소 자랍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은 모두에게 같은 답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속도와 방향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천교육이 바뀌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인천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길을 잃지 않도록, 그 길을 따라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 진로를 향한 온·오프라인의 연결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배우고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고, 그 흐름 속에서 2022년 전국 최초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었습니니다.



▶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홈페이지<sup>4</sup>

4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https://cyberjinro.ice.go.kr>)

하지만 진로는 화면 속 정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고, 질문을 던져야 비로소 자신의 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탐색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로 진로를 ‘겪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대로진로센터는 그러한 공간으로써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 사이버진로교육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이해한 자신의 길을 오프라인에서 경험과 상담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관심을 찾고, 오프라인에서는 그 관심을 실제 경험으로 이어가며, 전문 상담에서는 그 경험을 미래의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오프라인의 연결은 결국 학생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더 깊고 정확한 확신을 갖도록 돕고, 그 결이 미래의 삶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깊이 있는 탐색, 나답게 발견한 진로**

북부 결대로진로센터(2024년 개소)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더 깊이 탐색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심화 진로 프로그램인 ‘진로나비(나답게 비상하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8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진로 방향이 비교적 뚜렷하고 탐색 의지가 높은 학생들이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로를 다각도로 탐구해 보는 진로 심층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진로나비를 통해 막연했던 관심이 하나의 ‘직업’으로 구체화되고, 학교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새롭게 세워 보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실험과 체험 중심 활동 속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현실적인 언어로 정리하는 힘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연하게 꿈을 꾸던 학생들이 센터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직업’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발견하고, 당장 학교생활에 적용할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인천○○고 김○○

“원래 바이오 관련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DNA 추출 실험이나 혈액형 구분 실험을 하면서 생명과학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실험을 통해 내 몸의 가장 기초적인 벽을 배웠으며, ‘나’ 자체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매우 뜻깊었습니다.”

- 인천○○중 김○○

“이전에는 제 진로의 목표에 대해 대충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도였지만, 이 활동 덕분에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중요한 결정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래 계획표를 더 구체적으로 세워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중 황○○



수학의 비밀



몽글몽글 바이오랩



우리의 도시

▶ 인천광역시 북부 결대로진로센터 ‘진로나비’ 프로그램 모습

이처럼 인천의 학생들은 결대로진로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획일화된 길이 아닌 자신만의 ‘결’을 발견하며 진로를 설계해 갑니다. 진로나비는 그 여정 속에서 학생들이 한 걸음 더 단단해지고, 스스로의 선택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삶의 힘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진로 여정**

인천의 진로교육은 우리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결을 발견하도록 함께 손잡아주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변화하는 미래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결대로’라는 말에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다움과 잠재력을 존중하고, 그 결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사로서 우리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꿈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경험하도록 안내하며,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계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합니다.

결국, ‘나를 찾는 여행을 위한 질문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의 답은 학생

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써 내려가는 이 여정을 지속하며, 모든 아이가 자신  
의 길을 따라 꽃을 피우도록 따뜻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 Chapter. 3

# 그 길, 꼭 가야 하나요?

속도는 모두 다르다

경험에서 자라는 배움

세상 속에서 배우는 진로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

새로운 길을 앞둔 선택

고3의 빛나는 출발을  
응원하며

#### 4 진로편

# 요즘, 인천 학생 길

## ○ 그 누구의 길도

처음부터 완성된 지도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느리게 걷는 발자국도, 잠시 멈춘 자리도  
모두 자신만의 방향을 찾기 위한 시간입니다.  
길이 달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속도로 자라는 중일 뿐입니다.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그 길, 꼭 같아야 하나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뜻하는 ‘진로(進路)’는 영어로 path, career로 번역됩니다. path는 발 딛고 걸어가는 길, 방향, 목표를 의미하고, career는 한 사람이 평생 쌓아가는 경험의 축적, 다시 말해 삶 전체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흥미롭게도 career는 ‘수레(car)의 움직임’에서 유래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수레가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가듯, 한 사람의 진로도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 긴 호흡의 탐색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진로는 정답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이 여정 속에서 배우고, 흔들리고, 자신만의 걸을 조금씩 찾아갑니다. 진로는 찾는 것이기도 하고,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탐색해 가는 시간 속에서, 진로는 서서히 ‘삶이 모습’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탐색이 보다 분명한 선택의 형태로 처음 드러나는 시점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때입니다. 일반고와 직업계고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은, 학생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무게감 있는 첫 분기점이 됩니다. 이는 단지 학교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어떤 경험을 통해 자신을 확장해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선택이 얼마나 깊은 고민 끝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진학과 취업 중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웠어요. 고민 끝에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꿈을 찾겠다는 소망으로 일반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김O명(일반고)

국어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고를 선택했습니다.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 김O진(일반고)

중학교 2학년 때 소프트웨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콘텐츠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직업계고의 콘텐츠 디자인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조O연(직업계고)

이처럼 첫 번째 고등학교 선택은 학생 개인의 성향과 경험,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은지에 대한 작은 직감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이 선택은 곧,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고 싶은지에 대한 첫 선언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두려움과 설렘, 기대와 불안을 모두 안은 채 각자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학생들의 진로 여정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같은 ‘고등학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생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걸을 다듬어 갑니다. 어떤 학생은 탐색의 시간을 넓게 가져가고, 어떤 학생은 관심과 소질을 보다 이른 시기에 구체화해 나갑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길

위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자신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고등학교 생활에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 속도는 모두 다르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 교실에서의 대화, 스스로 해낸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감각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만 이 과정이 모든 학생에게 같은 방식, 같은 속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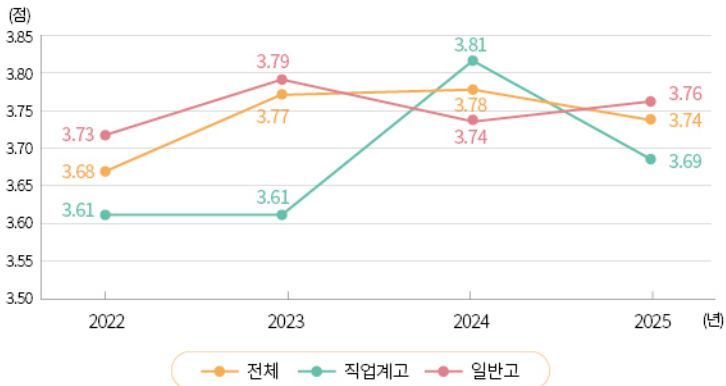
특히 학교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양상에는 서로 다른 흐름이 관찰됩니다. 이는 한 학생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추적한 결과라기보다, 매년 다른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반복된 결과는, 학교 유형별 진로 경험 환경이 학생들의 자기 이해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가 보여주는 서로 다른 흐름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는 학교 유형에 따라 안정과 변동이라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2022년 3.73에서 2023년 3.79, 2024년 3.74, 2025년

3.76으로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고 학생 집단에서 진로를 한 방향으로 확정하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탐색하는 인식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인천 일반고와 직업계고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 비교(5점척도 평균)

반면, 직업계고 학생들은 2022년 3.61에서 2024년 3.81로 뚜렷한 상승을 보였다가, 2025년에는 3.69로 다시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는 현장 경험과 전공 수업을 통해 진로를 보다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에 대한 인식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현실적인 점검과 고민이 반영되면서 응답이 조정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한 학생의 성장 궤적이라기보다는 각 학교 유형에 속한 학생 집단이 진로를 경험하는 방식과 맥락의 차이가 반복적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교사의 눈으로 읽는 '학생 자기 이해'의 출렁임

직업계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공과 현장을 경험합니다. 실제 직무 환경을 접하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나에게 맞을까?'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이해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높아지기도 하고, 동시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사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변동은 문제가 되기보다 진로를 현실의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의 방식과 삶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자기 이해에 대한 응답이 오르내리는 현상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데이터 속 이야기들

그래프 속 숫자는 학생 개개인의 마음을 직접 드러내지 않지만, 학교 유형에 따라 진로를 경험하는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관심의 폭을 넓히며 진로를 탐색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보다 이른 시기에 전공과 현장을 경험하며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느 쪽이 더 낮거나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로는 학생마다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며, 각자의 환경과 경험 속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이해되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진로교육의 역할은 이 차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처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 속도에 맞춰 조용히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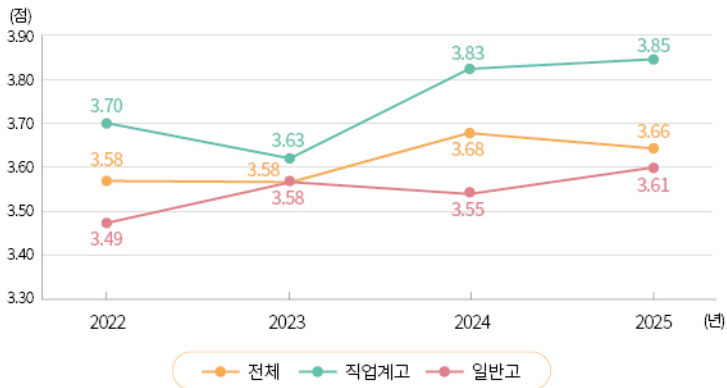
이처럼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가 드러나는 방식은 학교 유형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지만, 모든 학생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나’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이 진로를 배우고 경험하는 방식 역시 하나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특히, ‘경험’은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됩니다.

## 경험에서 자라는 배움

학생들이 진로를 이해하는 방식은 책과 수업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보고, 실제 일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는 과정 속에서 ‘일’이 가진 의미와 책임을 함께 배우며 진로 감각이 조금씩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 몸으로 배우는 순간이 주는 힘



#### ▶ 인천 일반고와 직업계고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 효과성 비교(5점척도 평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해 직업계고가 전반적으로 일반고보다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직업계고는 2022년 3.70 → 2023년 3.63 → 2024년 3.83 → 2025년 3.85로, 2023년에 잠시 낮아졌다가 2024년부터 다시 상승해 2025년에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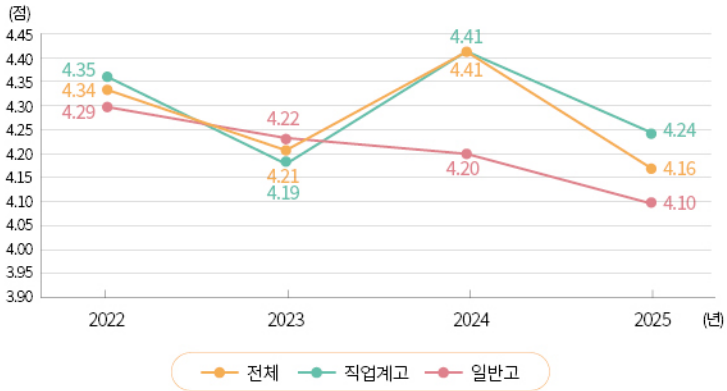
반면, 일반고는 2022년 3.49 → 2023년 3.58 → 2024년 3.55 → 2025년 3.61로, 2023년에 상승한 뒤 2024년에 소폭 낮아졌다가 2025년에 다시 올라서는 흐름을 보입니다. 전체 평균 역시 2022년 3.58, 2023년 3.58로 유지되다가 2024년 3.68로 상승한 뒤 2025년 3.66으로 소폭 조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 기반 경험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진로를 보다 구체적인 ‘현실의 장면’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일반고에서 2025년에 도움 정도가 다시 높아진 점을 함께 살펴보면, 현장 경험은 특정 학교 유형에 한정된 요소라기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상상하고 점검해 보는 과정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험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험 중심 진로교육은 진로를 결정하게 만드는 단일한 계기라기보다 학생이 관심과 선택을 확인하고 조정해 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안전한 탐색의 기회와 다양한 경험의 장을 넓혀 줄 때, 학생들은 각자의 걸을 따라 스스로의 길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힘**

진로를 깊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뿐 아니라, ‘일은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세계 되는가’라는 질문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자라는 것이 바로 노동과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인천 일반고와 직업계고 노동인권과 권리에 대한 이해 비교(5점척도 평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역시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교육’의 변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직업계고의 경우 2022년 4.35에서 2023년에 4.19로 소폭 낮아졌다가 2024년에는 4.41로 상승한 뒤 2025년 4.24로 다시 조정되는 흐름입니다. 일반고는 2022년 4.29에서 2023년 4.22, 2024년 4.20, 2025년 4.10으로 완만한 하락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흐름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노동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점과 맞닿아 있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노동인권 이해도가 높아진 점은, 진로 체험과 현장 경험이 단순한 직업 정보 습득을 넘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생각해 보는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노동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교육과정 특성 속에서 노동인에 대한 인식 역시 비교적 완만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는 노동인권 이해가 개인의 성향보다는 경험의 밀도와 맥락에 영향을 받는 영역일 수 있음을 조심

스럽게 보여 줍니다. 결국 이 데이터는 진로교육이 직업 선택을 돕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일의 의미, 협업의 방식, 안전과 권리, 책임과 존엄을 함께 배우는 삶의 감각을 키우는 과정임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학생들은 진로를 고민하며 ‘무엇이 될 것인가’뿐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일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까지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 경험과 이해가 만나는 지점

현장 경험과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는 서로 분리된 요소라기보다, 학생들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앞선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진로를 경험하는 방식과 그 경험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인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 현장 경험을 통해 일의 현실을 먼저 접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면, 진로에 대한 인식이 보다 또렷해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험 → 이해 → 재인식’이라는 연결 고리가 비교적 빠르게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면 일반고 학생들은 교과 중심의 탐색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경험을 보완해 가며 진로 이해를 점진적으로 넓혀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장 경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탐색과 성찰을 반복하며 자신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조율해 가는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속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집단 모두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기 위해 경험을 확장하고 이해를 깊게 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속도를 비교하거나 판

단하기보다는 각자의 속도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배움의 걸을 찬찬히 살펴보고 지지하는 역할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넘어 학교 밖의 세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자신의 ‘걸’을 발견하고, 실제 사회 속에서 시험하고 조정하며 더 넓은 배움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학교 밖으로 옮겨,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진로를 어떻게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 세상 속에서 배우는 진로

진로의 성장은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학교 밖에서 ‘세상’을 만나며 배움을 확장합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일, 누군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 작은 책임을 맡거나 직장 문화를 상상해 보는 일은 모두 학생들이 진로를 ‘배워 가는 과정’ 안에 놓여 있습니다.

교실이 자신을 알아가는 공간이라면, 세상은 그 배움을 실제로 시험해보고 다시 배우게 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노동을 만나는 순간들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나는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진로교육은 교실 안의 탐색에서 끝이 아니라, 학생들이 세상과 연결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상 속 진로’를 실제 경험의 장면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 세상 속 첫 경험

학생들의 진로는 학교 안에서 싹트지만, 학교 밖에서 처음 일을 경험하는 순간 비로소 현실의 무게와 배움을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불안했어요.”와 같은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경험은 학생들이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회와의 만남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첫 노동 경험을 더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대봉투(표준근로계약서 대봉투)’를 개발해 배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학생과 고용주가 함께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돕는 이 대봉투는, 작은 사회 경험에서도 학생들의 권리와 존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대봉투’<sup>5</sup>

이러한 실천은 학생들에게 “일을 시작하는 순간, 나의 권리도 함께 시작된다.” 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5 2020 대한민국광고대상 수상-커뮤니케이션디자인, 프로모션부문(인천광역시교육청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icehongbo/222146397595>)

학교에서 ‘나’를 배운 학생들이 세상에서 ‘일’을 배우며 자신의 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이 세상 속 경험을 안전하게 탐색하도록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노동 경험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여정에서 중요한 ‘첫 장면’이 됩니다.

### 우리가 꿈꾸는 일터

2025년 11월 4일(화), 인천중산중학교 진로활동실에서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아직 노동을 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미래의 일터를 어떤 공간으로 상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과 삶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또렷한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말에는 일의 환경과 관계,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숙한 질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 면담 주제

-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곳, 어떤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나요?
-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 앞으로 변화할 직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마지막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며 진로를 찾아가고 배워가는 인천의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 노동에 대한 면담(인천중산중)

- 사회자(교사), 우예원(인천중산중2), 최리현(인천중산중2)

### 미래에 어떤 환경과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나요?

**사회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 일을 한다면, 어떤 분위기의 직장에서 일하고 싶나요?

**우예원** 저는 너무 불안정하지 않는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동료들이랑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괜히 작은 일로 혼나는 분위기는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근이 너무 많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일할 수 있는 회사면 좋겠어요.

**최리현** 저는 서로 소통 잘 되고, 같이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해보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직원들 복지도 잘 챙겨주고, 개인 생활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곳이면 더 좋겠어요.

**사회자** 다음으로, 회사의 복지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우예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상사랑 마주 쳐도 괜히 이유 없이 혼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최리현** 저는 서로 배려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사까지 간섭하거나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직업생활 중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사회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곳, 어떤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나요? 먼저 대인관계 측면에서 이야기 해 보세요.

**우예원** 상사랑 부딪히면... 솔직히 해고가 무서울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잘 못 말할 것 같아요. 따돌림 같은 걸 당하면 멘탈이 약해서 그만둘까 고민할 것 같아요.

**최리현** 저는 거리를 두고 제 할 일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부당하면 상사에게 말하거나 신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 미래의 근로환경이 맞지 않거나 힘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예원** 휴식도 없고 계속 일만 시키면, 회사에 조정해 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최리현** 저는 안 맞으면 이직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사회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우예원** 처음에 당황하겠지만,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다시 새로운 회사에 도전할 것 같아요.

**최리현** 저는 바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제 역량을 더 키워서 다시 시작하려고 할 것 같아요.

**사회자** 앞으로 변화할 직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예원** 저는 ‘적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기술도 빨리 바뀌고 직업도 계속 변하니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최리현** 저는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혼자 잘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마지막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며 진로를 찾아가고 배워가는 인천의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우예원** 진로를 정할 때, 너무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조언을 듣되,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면서 천천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리현** 진로 때문에 고민 많을 텐데,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응원할게!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중학생이라고 해서 아직 ‘진로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어떤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당함을 경험할까 두려워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을 고민하고, 맞지 않는 환경이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볼 준비도 하고 있는 모습은 이미 ‘일’을 통해 자신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진로는 기대와 설렘만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역시 진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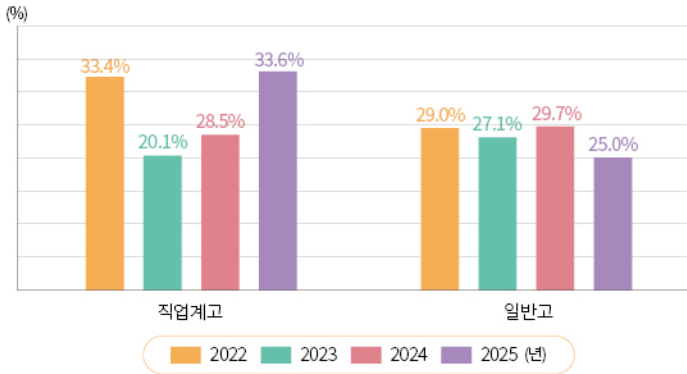
학생들이 말한 직장 선택의 기준, 일터에서의 감정, 어렵거나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은 모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내면의 탐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색이 깊어질수록 학생들은 때때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도 작은 균열과 마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 흔들림이 어떻게 나타나고 무엇을 말해주는지 학생들의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에는 학교생활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던 경험은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진로와 학습, 미래에 대한 압력과 연결된 감정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흐름은 분명해집니다.



▶ 인천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비교

직업계고 학생은 2022년 33.4%, 2025년 33.6%로 지속적으로 30%를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은 2022년 29.0%, 2025년 25.0%로 직업계보다 낮지만 4명 중 1명이 비슷한 고민을 경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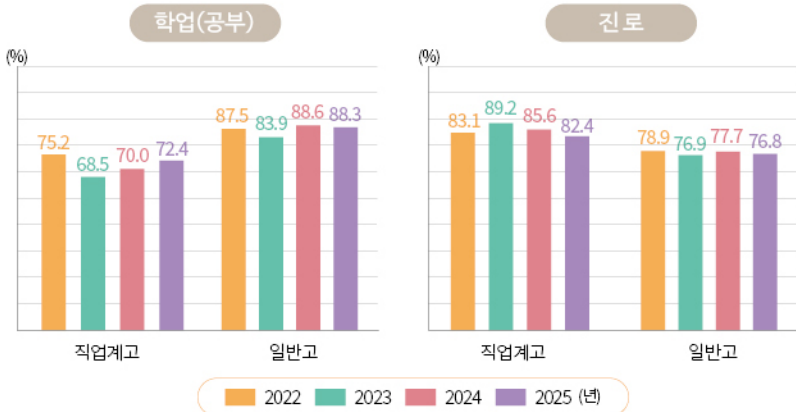
이 차이는 진로 경험의 무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자격증, 취업 준비 등 실제 진로 결정을 앞당기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흔들림을 ‘위험 신호’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멈추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학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일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고민의 결**

앞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듯, 진로의 흔들림은 때로 마음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학업과 진로라는 두 가지 고민의 축이 서로 다른 비중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데이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 나타난 인천 고등학생들의 ‘주된 고민과 걱정거리’를 살펴 보면, 학교 유형에 따라 고민의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천 일반고와 직업계고 주된 고민과 걱정거리 비교

2025년 기준으로 학업(공부)에 대한 걱정은 일반고 학생들 사이에서 88.3%로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 72.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이는 학업 부담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학업 외에 진로 선택이나 취업 준비와 같은 고민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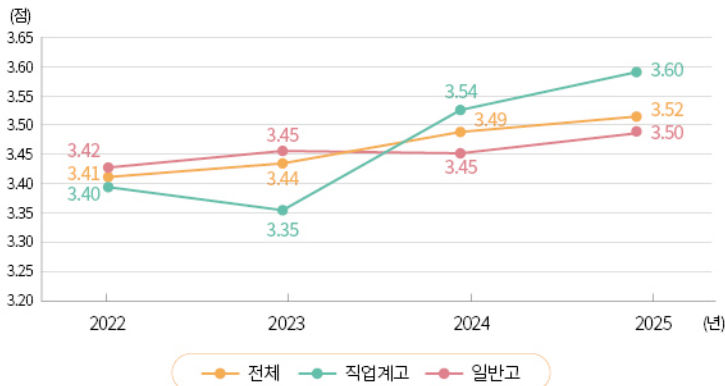
한편, 진로에 대한 걱정 비율은 직업계고가 2025년 82.4%, 일반고가 76.8%로, 학교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진로 문제를 중요한 고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고등학생 시

기 전반에 걸쳐 진로가 중요한 삶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이 단순히 성적이나 과제와 같은 당장의 문제에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기보다 앞으로의 삶과 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학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 수업 속 변화: 흥미의 흐름을 다시 보다

학생들의 마음이 늘 고민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움의 자리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순간들이 포착됩니다. ‘수업시간에 대한 흥미’ 데이터를 살펴보면, 학교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 인천 일반고와 직업계고 수업시간에 대한 흥미 비교(5점척도 평균)

직업계고 학생들의 수업 흥미는 2023년 3.35로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가, 2024년 3.54, 2025년 3.60으로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반면 일반고 학생들은 같은 기간 3.45에서 3.50으로 큰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계고의 전공 교과와 현장실습, 실무 중심 수업이 학생들에게 ‘배움이 나와 연결되는 경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대로 일반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탐색 중심 수업이 수업 흥미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배움을 만났을 때, 수업 속에서 다시 관심과 에너지를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 **고민이 많다는 것은 진로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

학생들이 학업을 걱정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때로는 학교 생활을 힘들게 느끼는 모습은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진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위기라기보다 오히려 성장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로 바라볼 여지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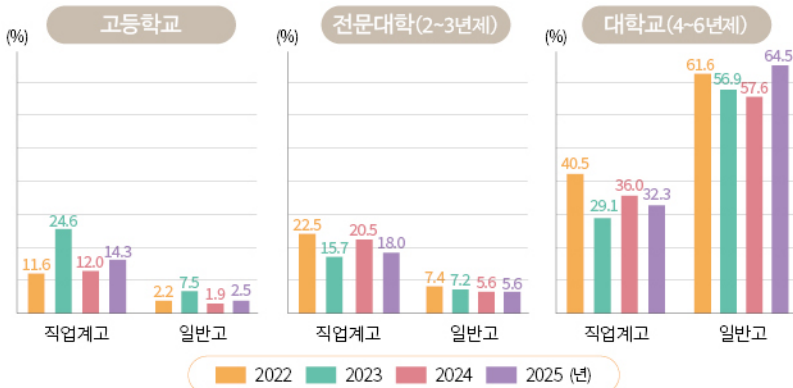
이 흔들림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으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깊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의 고민을 ‘부정적 신호’로만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학생이 흔들릴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도록,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안전한 여백을 마련해 주는 것—그것이 진로교육의 본질은 아닐까요?

## 새로운 길을 앞둔 선택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들의 흔들림은 단순히 ‘지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처음으로 느끼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 공부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 ‘나는 무엇을 잘 할까?’,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같은 질문에 오래 머물게 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오르내리다 보면, 학생들은 어느 순간 ‘현실적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나 가볍지 않습니다.

### 학생들이 품은 진학의 무게

고등학교 2~3학년이 되면 학생들의 고민은 구체적인 진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 라는 질문이 더 이상 막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제시된 데이터를 보면, 이 선택의 양상은 직업계고와 일반고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 인천 일반고와 직업계고 희망 최종 학력 비교

먼저 전문대학을 선택한 비율을 보면, 직업계고 학생은 22.5%(2022) → 20.5%(2024) → 18.0%(2025)로 나타나며, 일반고 학생은 7.4%(2022) → 5.6%(2024) → 5.6%(2025) 수준을 보입니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기술을 살릴 수 있는 2~3년제 전문대학을 현실적인 진학 경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장 실습과 전공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직업계고의 특성이 반영된 흐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6년제 대학을 선택한 비율을 보면, 직업계고 학생은 40.5%(2022) → 32.3%(2025)로 점차 낮아지는 반면, 일반고 학생은 61.1%(2022) → 64.5%(2025)으로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5년 기준, 일반고 학생 10명 중 6~7명은 4년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고 교육과정의 방향성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한편, 직업계고 학생들의 4년제 대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흐름은 '취업 이후 추가적인 진학'이라는 단계적 선택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보다는 취업을 먼저 경험한 뒤, 필요에 따라 학업을 이어가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선택한 비율을 보면, 직업계고 학생은 11.6%(2022) → 12.0%(2024) → 14.3%(2025)이고, 일반고 학생은 2.2%(2022) → 2.5%(2025)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선택 비율은 일반고보다 약 6배 높습니다. 이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맞닿아 있으며, 학생들이 현장실습·전공수업·자격증 취득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직무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상상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경험해 온 진로 환경과 그 속에서 체감하는 선택의 무게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 경험과 취업 준비 과정 속에서 진로 결정을 앞당겨 고민하게 되는 반면, 일반고 학생들은 비교적 긴 탐색의 시간을 전제로 선택을 준비하는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는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선택의 시점과 방식, 그리고 그 무게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선택을 바라보는 마음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학생들의 선택은 단순히 “진학이냐, 취업이냐”로 나누는 문제라기보다 각자의 경험과 고민이 축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어떤 학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비교적 이른 확신에 이르고, 어떤 학생은 더 넓은 탐색의 시간을 갖기 위해 대학이라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지금의 선택이 하나의 과정일 뿐, 앞으로도 여러 번의 선택이 이어질 수 있음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학생의 선택은 부족함의 결과라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미래를 모색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진로는 곧게 그려진 하나의 선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빠르게 나아가고 때로는 머뭇거리며 방향을 조정해 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속도와 경로는 다르지만, 학생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무게와 고민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3학년, 학교를 떠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앞에 두고 고민과 설렘을 함께 나누었던 네 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고3의 빛나는 출발을 응원하며

2025년 11월 5일 늦가을, 인화여자고등학교 외국어교실에 네 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 서로 다른 진로를 앞둔 학생들이었지만, 교실 안에는 공통된 긴장과 설렘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대화는 진로를 결정짓기 위한 토론이라기보다 각자가 지나온 선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과 기대를 솔직하게 나누며, 저마다의 속도로 새로운 길 앞에서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시점에서 마주한 진로의 무게와 희망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교사 이상기), 김아진(인화여고3), 김선명(선인고3),  
김정후(인천소방고3), 조수연(인천비즈니스고3)

“진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를 묻는 말이에요.”

**사회자** 진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아진** 진로는 단순히 직업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싶은지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진로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김정후** 저에게 진로는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소방 직업계고를 알게 됐어요. 현장에 나가 사람을 직접 돕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이 길을 선택했어요.

**김선명** 저는 방송 일을 하고 싶어요. 진로란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일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서 나다운 방식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싶어요.

**조수연** 진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길이에요. 컴퓨터와 디자인을 배우며, 내가 만든 무언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생들에게 진로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자기이해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진로를 통해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진로 준비, 나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 사회자** 진로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있었나요?
- 김아진** 시험을 준비하면서 커피도 못 마시고 밤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정보가 부족해 혼자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버거웠어요.
- 김정후** 소방 공부를 시작할 땐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렸고, 체력훈련까지 병행하느라 하루가 모자랐죠.
- 김선명** 입시 제도를 잘 모르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혼자 준비했어요. 방송이 문과 계열이라 이과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고, 대학 정보를 직접 다 찾아야 해서 어려웠어요.
- 조수연** 직업계고 학생은 전공 과목이 많아서 일반 교과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선택지가 좁아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진로 준비의 어려움은 다르지만, 그 안에는 공통적으로 불안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로를 찾아가는 시간, 또 하나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어요.”

- 사회자**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 김선명**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은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힘을 마련해 주었어요. 중학교 때 발표 공포증이 있었는데, 방송 동아리 활동 덕분에 무대에서 말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지금은 축

제 MC도 맡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자신 있게 해요. 리더십과 자신감은 저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큰 무기가 되었어요.

**김아진** 저도 비슷해요. 동아리에서 차장을 거쳐 부장이 되면서 책임감이 커졌어요. 토론 대회에서 상을 받으며 ‘말로 설득하는 힘’을 배웠고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김정후** 나다움을 찾기 위해 저는 생활습관을 바꾸었어요. 통학 2시간 반, 새벽 운동, 공부까지 매일 스스로 계획을 세웠어요. 힘들었지만 고등학교 생활이 저를 자율적이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조수연** 저는 선생님들이 ‘1학년 때보다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생각이 깊어졌다’고 하실 때 성장했다고 느껴요. 제가 몰랐던 제 변화를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한 걸음 다가갔어요.

성장은 성적표가 아닌 마음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며 자신만의 ‘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 ‘또 다른 나’를 응원하며

**사회자**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조수연** 직업계고라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 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길 바라요.

**김선명** 진로를 못 정한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면, 평소에 자주 하는 일이나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김아진** 입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주변 말보다 스스로를 믿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학생들이 나는 말들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조언이라기보다, 각자가 지나온 시간을 솔직하게 돌아본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진로는 이미 정해진 길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 가는 여정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대답이 끝나자, 학생들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을, 누군가는 현장을 향해 나아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 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진로는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한 걸음 내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 **인천 학생들의 진로 여정을 돌아보며**

지난 8년 동안 인천의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학생은 교실에서, 어떤 학생은 현장에서, 또 어떤 학생은 흔들림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진로가 특정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긴 여정’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변화와 학생들이 들려준 목소리를 겹쳐 보면, 서로 다른 속도로 자라지만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오래 머물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다시 움직이며 학생들은

자신만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인천교육은 이러한 과정이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천천히 불을 밝혀 왔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의 속도를 재촉하기보다, 그 속도 안에서 자라는 걸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또한 학생의 선택을 지지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책이 진로를 고민하는 인천의 학생에게는 스스로를 비춰 보는 용기의 거울이 되고, 진로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에게는 학생의 걸을 읽는 따뜻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이 자라나는 도시, 인천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의 속도와 결대로 단단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 참고문헌

- 강혜영, 이은설, 우유진(2021). 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4차년도 기초 분석. 인천교육-2021-20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김문정, 홍문선, 김주광, 정희남, 조원영(2019). 인천 학생의 생활종합실태분석 및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인천교육-2019-10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김왕준, 여태철, 김종민, 박주형, 김민규(2018).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생활종합실태 분석을 통한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인천교육-2018-0067,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 인천광역시교육청(2018~2025). 인천 진로교육 추진 계획.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인천 학생생활 실태조사(2018~2020) 결과 보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내부 자료.
- 임태원(2022).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1차년도). 인천교육-2022-22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임태원(2023).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2차년도). 인천교육-2023-18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임태원(2024).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3차년도). 인천교육-2024-25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임태원(2025).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4차년도). 인천교육-2025-29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요즘, 인천 학생 ④ 진로편

## 길 | 진로 여정을 쓰다

기획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김효영(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관)  
김병수(인천당산초등학교 교감)  
김용순(인천학익초등학교 교감)  
김용진(동암중학교 교감)  
서해주(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교감)

집필 | **위원장** 유충렬(선인고등학교 교장)  
**위원** 전아정(인천광역시교육청 북부 결대로진로센터 파견교사)  
김세왕(인천도림초등학교 교사)  
정동연(인천합박초등학교 교사)  
조성아(인천중산중학교 교사)  
이상기(인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자문 | 김택현(인천아라고등학교 교장)

---

발행일 | 2025년 12월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우)21554

<http://www.ice.go.kr>

032-423-8232

ISBN | 978-89-6960-140-7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